

오우노마이

개요

오우노마이(‘王舞’라는 한자 의미 그대로 '왕이 춤을 추는 것'이라는 뜻)는 일반적으로 긴 코가 달린 탈을 쓰고 칼을 휘두르는 한 남성이 공연을 하는 의식입니다. 이 전통은 11세기부터 14세기에 걸쳐 일본의 옛 수도인 나라와 교토에서 전해졌다고 알려져 있습니다. 일본해 연안의 항구도시와 도심지역 간 활발한 무역이 와카사에 이러한 관습을 전하며 문화교류를 촉진한 것으로 보입니다. 현재 이 지역에서는 17개의 '오우노마이'가 보존되어 있으며, 봄 축제에서 자주 볼 수 있습니다. 춤의 형식이나 길이, 참가 인원, 의상은 장소에 따라 다릅니다.

상세 정보

천 년 전부터의 전통

오우노마이의 기원과 목적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잊혀졌지만, 이 전통은 11세기경 나라와 교토의 종교적인 장소에서 시작되었다고 추정됩니다. 많은 오우노마이 의상 중 빨간색은 사악함을 물리치는 것과 관련이 있으며, 춤에 관한 신사의 전설 중 일부는 영웅이 적을 물리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이는 재난이나 불행을 막기 위해 이 의식이 행해졌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.

부가쿠와 기가쿠의 관계

오우노마이는 궁중이나 귀족을 위해 전통적으로 공연되던 고대 춤 '부가쿠'에서 유래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. 부가쿠는 6세기에 무역과 문화교류 과정에서 아시아 대륙으로부터 전해져 8세기경까지 일본의 독자적인 예술형식으로 발전했습니다. 오우노마이와 무용수가 승리를 축하하는 군 지도자를 연기하는 산주, 기토쿠 등 고대 부가쿠 작품 사이에는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. 또, 오우노마이는 부가쿠의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아시아 대륙에서 점차 사라져간 더 오래된 탈춤 기가쿠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. 의식적으로 길을 정화하는 역할을 맡은 연기가 기가쿠 공연 전에 오우노마이 탈과 비슷한 탈을 쓰고 행렬을 이끌었기 때문에 일부 연구자들은 그 행렬이 코가 긴 탈을 쓴 오우노마이 춤꾼의 기원이라고 말합니다.

장원의 역할

오우노마이 전통은 와카사와 옛 수도를 잇는 교역로를 통해 와카사로 전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. 오우노마이 전통은 먼 지방에 있는 귀족이나 유력한 신사불각에 의해 유지되었던 장원이라 불리는 사유농지에 의해 유지되었습니다. 이러한 장원은 교토나 나라의 문화를 와카사에 전파하는 데 크게 기여했는데,

현존하는 오우노마이의 대부분이 과거 장원 땅이었던 신사에서 행해지고 있습니다.

오우노마이의 종류

와카사 지역 신사에 보존되어 있는 17 개의 오우노마이 각각에는 차이가 있습니다. 2 분밖에 안 되는 춤도 있는가 하면 최장 1 시간 동안 이어지는 것도 있습니다. 대부분은 한 남성 춤꾼이 연기를 하지만, 그 중에는 여러 명의 참가자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. 출연자는 어른인 경우도 있고 학령기 소년이 연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오우노마이 의식의 주된 주제는 악을 쫓는 것으로 여겨지지만, 신사에 따라 이 춤은 풍작이나 풍어 등 특정한 이익을 기원하기 위해 신에게 바치는 봉납의 역할도 합니다. 이러한 차이는 오우노마이가 각 지역의 민간 전승과 마을 사람들의 소망, 생활양식에 맞게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를 보여줍니다.

전시품

마네킹을 이용해 다양한 의상, 가면, 미늘창을 전시하고 있는데, 이를 통해 와카사에서 지금도 행해지고 있는 17 개 오우노마이의 차이를 보여줍니다. 마네킹 앞에는 의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여주는 춤 사진이 전시되어 있습니다. 스크린을 통해 비디오 영상을 재생하여 천천히 진행되는 의식적인 춤의 양식적인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에도 시대(1603 년~1867 년)의 붉은 하오리, 공작 깃털로 만들어진 정교한 봉황 머리장식, 코가 긴 탈은 모두 미미 신사의 오우노마이에서 사용된 것으로 유리케이스에 전시되어 있습니다.